

세종시교육청,마을단위학교스포츠클럽 ‘동동동’ 순항 중

자전거 등 15종목, 25개 학교에서 1,169명 동동동 활동 참가
자전거, 수영 등 새로운 종목 추가...학생들 전인적 성장 도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마을 아이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만나고 소통하는 학교 밖 스포츠학교인「마을단위스포츠클럽 ‘동동동’」(이하 동동동 활동)을 지난 4월부터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동동동 활동’을 지난해 20개 학교에서 올해 25개 학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동동 활동’에서는 자전거 등 15종목이 25개 학교에서 진행됐으며, 1,169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가족이 함께 스포츠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동동동 활동’은 학사일정을 고려해 주로 주말에 진행되며, 일부 활동은 방과후에 진행된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



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농구, 배구, 배드민턴 외에도 자전거와 수영 같은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방학 중에도 ‘동

동동 활동’을 꾸준히 운영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자전거 종목의 경우 자전거를 전공한 체육 교사를 지도교사로 초빙해 체계적

인 ‘동동동 자전거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세종지역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하고 문화 체험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동동동 자전거 스포츠클럽’ 지도교사는 학생들의 자전거 체험을 다양화하기 위해 방학 중에 1박 2일 자전거 문화 체험을 군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조건행 자전거연맹 회장은 “‘동동동 자전거 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를 기르며 인근 지역 탐방을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훌륭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동동동 활동’을 지속해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동동 자전거 스포츠클럽 지도교사인 새뜸중학교 김청후 교사는 “‘동동동 활동’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하며, 향후 학생들과 함께 안전하게 세종을 넘어 전국 일주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동동동 활동’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경기관람, 친선경기 등 스포츠 문화체험도 운영될 예정이다.

/정민준 기자



대전교육청,「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발대식

참신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교육현장 조직문화 개선 기대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달 30일, 시교육청 701호 회의실에서 세대간 인식차이를 해소하여 배려하고 화합하는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MZ세대 상호존중 서포터즈」는 지난 달 공개모집을 통해 공직경력 10년 미만인 90년대생 교원 및 지방공무원 23명을 선발·구성했으며, 앞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청렴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제안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과 서포터즈는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청렴의 의미를 공

유했으며, 앞으로 청렴한 대전교육을 위한 서포터즈로서의 당찬 포부도 밝혔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세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많은 의견과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반부패·청렴정책 기획단’을 운영 중이며, 현장을 찾아가는‘부패취약분야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공간 간담회’ 등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향한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민준 기자

충남교육청, ‘2024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준비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으로 우수 기업체 대거 참여 기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7월 17일 천안유관순체육관에서 ‘2024년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38개 직업계고와 50여 개 기업체가 참여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는 우수 중소·중견기업과 직업계고 학생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행사로,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선택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박람회는 ▲3학년 대상 현장채용 면접 ▲1, 2학년 대상 취업진로체험 ▲직



업교육 정책 안내 ▲유관기관 홍보 ▲미래사회 전문가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충남지방중소벤처

기업청과 협력해 준비하고 있어 우수 기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충남교육청과 충남중기청은 5월 말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6월 중순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동규 미래인재과장은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는 도교육청과 충남중기청의 협력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우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충남교육청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교육청(041-640-7533, 7535)이나 충남중기청(041-415-06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두호 기자

‘전국 발명 꿈나무들의 도전’ 글로벌 박람회장서 빛났다

전국 초·중·고생 48개 팀 참여 ‘2024 창의도전페스티벌’성료



전라남도교육청과 목포MBC가 주최하고 전남발명교육연구회에서 주관한 ‘2024 창의도전페스티벌’이 지난 1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축제에는 예선 심사를 거쳐 참가한 전국 초·중·고생 48팀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메타버스 체험과 공연을 즐기는 축제로 진행됐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 중인 전라남도 특화 메타버스 콘텐츠들이 아이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목포MBC 메타휴먼 세아(SE:A)와 홀로그램 체험 공간에서 만나 함께 사진을 찍

어 소중한 추억을 남겼고, 메타버스 퍼포먼스 공연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미래와 창조가 탐험하는 글로벌 미래 교육 ON!’을 주제로 코딩 로봇과 물리볼 장치를 활용하고, 스마트 큐브 메타버스 플랫폼 월드(WILLD) 안에서도 공개 미션 과제를 수행했다.

2시간 30분 동안 대화장은 아이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여한 전국 발명 꿈나무들의 도전기는 미니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목포MBC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하성매 기자

전남교육청, 유치원 미래교실 운영 모델 제시

2024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장에 교실 구축 수업 공개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 동안 여수에서 열린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를 통해 ‘2030 유치원 미래교실’의 모델을 공개했다.

이 기간 전국 및 해외의 유아교육 관계자, 주요 인사, 학부모, 일반인,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관해 전남교육청이 제시

하는 유치원 미래교실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년여 동안 전남교과교육연구회 유아교육분과, 교원 및 전문직으로 TF를 꾸려 유치원 미래교실수업의 방향을 논의해 반영했다.

미래교실은 유아 주도성, 가변성, 다양

성, 창의성, 지속가능성, 탄소 중립의 가치를 담아 구현했고, 미래수업은 ‘공생과 미래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전남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유아의 삶에 기반한 내용으로 설계됐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유아 주도성 키움 수업, 공동교육과정 운영, 1교실 2교사제, 디지털 기반 환경 구축, 디지털 활용, 지역과 연계한 생태전환수업을 개발해 온오프라인으로 3일간 공개했다.

특히, 여수의 3개 유치원(여수남, 여수

한려, 관기)이 5월 한 달간 ‘내가 살고 있는 여수바다’라는 주제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보여줌으로써 참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신 유초등교육과장은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에서의 보여준 유치원 미래교실의 운영 모델이 현장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전남의 소규모유치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과정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성매 기자



『당신을 만나기까지』

사람은 성실할수록 자신감을 얻게 된다. 성실할수록 태도가 안정되어 간다. 성실할수록 정신을 차리게 된다. 성실할 때에만 자기가 엄연히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갖게 된다.
‘한 잔 술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그리운 것이다.